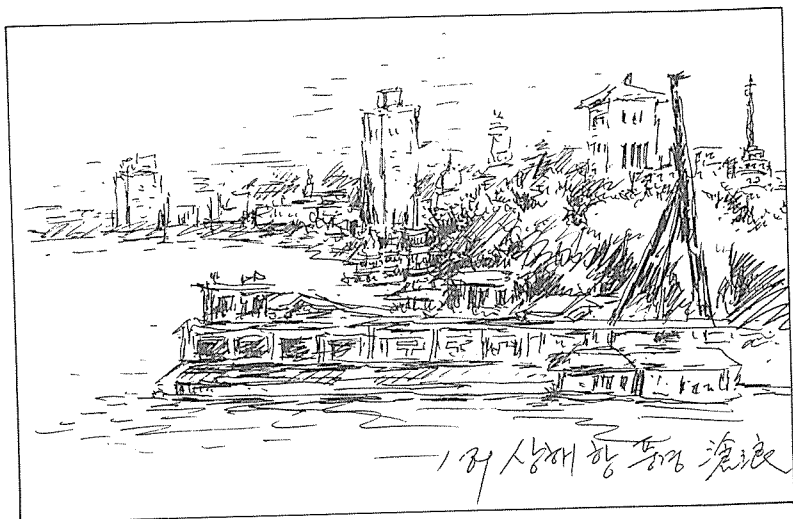


중국

대륙의 장막을 헤치고 (3)

배순덕



▲ 상해항 풍경

시장을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興業路(싱예루) 76號 一大會址 근처에서 허름한 차림의 젊은 남자와 마주쳤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컴컴한 건물 모퉁이에서 불쑥 튀어나온 그 남자는 지갑을 들어 올리며 손가락을 펴보였다. '암달러 상인가?' 생각하며 거절의 몸짓을

해 보였는데도 자꾸만 따라온다. 영어는 그 친구가 못 알아 듣는 것 같고 중국어는 내가 못 알아 들으니 피차 만국 공통어를 쓰는 수밖에. 손짓, 발짓 아무리 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중국에 가기 전 중국을 다녀온 여러 사람들이 내게 말했었다. "중국에 가면 버라별 친구가 다 있고 특히 돈을 바꾸자고

해 놓고 나꿔채서 달아나는 사람이 많으니 조심하라"고. 그러한 선협자의 충고를 기억하고 있던 터라 짧은 한 순간에 갖가지 상상을 떠올리며 그 자리를 피하려다 보니 전혀 엉뚱한 길로 들어섰다.

낮 동안의 바쁜 일정을 끝내고 사평로 1251호에 있는 숙소인 백옥란(白玉蘭) 호텔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6시. 저녁을 먹고 자유롭게 시내 구경을 하고 싶어 바로 호텔을 나섰다. 호텔근처의 상점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오가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무작정 버스를 탔다.

가면서 사람들에게 시장을 물어보았더니 모두들 잘 모른다고 했다. '아! 이 사람들은 시장이란 말도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하며 함께 간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몇 정거장을 더 가서 내리면 된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르쳐준 곳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아무래도 차를 타고서 무얼 찾는다는 건 힘이 들겠다 싶어 걷기로 작정했다. 목표를 시장으로 정하고 나서긴 했으나 중국의 진솔한 모습과 정취를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아무래도 상관은 없었다. 그래 건자, 걸으면서 찾아보자. 그렇게 생각하며 건다가 당도한 곳이 一大會址이다.

一大會址(이따후이즈)는 제1회 중국공산당 전국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던 곳으로 프랑스 조계내에 있는 이층건물이다. 공산당 전국대회라고는 하나 말이 전국대표회의이지 당시의 공산당원 총 57명 중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13명만이 참가한 회의였다. 모택동도 그 열세명중의 하나로 호남성대표로 참가했었다 한다.

그런데 바로 그 일대회지 건물의 골목 어귀에서 앞서 말한 젊은 남자를 마주친



◀ 예원(藝園).예원은 상해시에 있는 유일한 정원이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예원의 담장 너머로 창문을 열어 놓은채 빨래를 말리고 있는 중국인들의 살림집이 함께 보인다.



◀ 安遠路 10號 상해시내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玉佛寺의 불상(부분). 버어마로부터 운반되어 왔다는 이 옥불좌상은 거대한 옥돌하나를 깎아서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것이다.

쫓기듯이 그 남자를 피하다가 무작정 어둠속으로 뛰어 들었다. 一大會址 근처는 가로등과 장식등으로 대낮처럼 불빛이 환했는데 그곳에서 불과 백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둠과 적막의 휘장이 차갑게 뒤덮인 곳이 있었다.

처음에 나는 차가 다니지 않는 폐쇄된 도로인줄만 알았다. 헌데 다시 살펴보니 벌써처럼 난무하는 어둠사이로 유명한 도시처럼 우뚝우뚝한 건물이 있어 한 순간 오

싹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더욱 놀란 건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비쳐져오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어두운 주택가 문앞에 반쯤 벗은 몸의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무수히 널려 있었고, 그들은 아무런 대화도 없이 그저 묵묵히 앉아 있거나 누워있어 얼핏 보았을 때는 역병에 휩쓸린 폐허의 도시처럼 보였다.

발 밑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 오르는 두려움을 삼키느라 침을 한번 꿀꺽 삼켰다. 그리고는 심호흡을 하며 가만가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많은 집들 중에 어디에서고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은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건, 어떤 제도에 의한 획일적인 통제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광경이란 사실이었다.

그러한 그곳의 사람들에게 차마 말을 붙여볼 엄두가 나지않아 머뭇거리고 있는데, 모퉁이 저쪽에서 부터 버스가 불빛을 반짝이며 미끄러지듯이 다가와 멎었다.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은 익숙하게 타고 내렸다. 그들에게 휩쓸려 나도 엉겁결에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의 밝은 불빛 아래 가득히 들어선 사람들 틈에 끼어서 한참을 출렁거리며 달려간 후에야 비로소 정신이 드는 듯 했다.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던 남경로와 해해로의 낮 풍경 속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 더군다나 조금 전에 상해항 근처를 걸어 오면서 수차례씩 보았던 데이트하는 젊은 남녀들의 평화로운 모습에 비추어서는 더 더욱이 상상이 가지 않는 광경이었다.

중국에 도착한 이후 며칠동안, 나는 이

곳이 우리나라와는 이념과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지냈었다. 우리보다 조금 남루해 보이긴 하지만, 반팔의 흰 윗옷을 걸치고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이들과, 길거리 평상 위에 멀거니 걸터앉아 부채질 하는 노인들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무슨 무슨 반점과 자전거포, 사진관 등이 내 어린 시절 우리 동네 거리의 어느 모퉁이 같은 낮익은 풍경들이 어서 더욱 그랬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린시절 뿐만 아니라 오늘의 서울에도 그런 풍경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달동네 판자촌의 왁자한 웃음소리와 등화관제 혼란 때에도 커튼 사이로 불빛이 빼꼼히 새어 나오던 서울의 밤풍경을 기억하고 있는 나로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낮선 풍경이 아닐 수 없었다.

그날 상해의 밤 나들이는 ‘사회주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낮동안의 무질서를 이렇게 해서 질서 속으로 엮어가고 있구나’ 하는 미묘한 감정을 비로소 실감하게 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72

〈필자=화가. 호는 창랑(滄浪)〉

국민 식생활지침

- ① 여러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읍시다.
- ②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알맞게 먹읍시다.
- ③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먹읍시다.
- ④ 과음을 삼갑시다.
- ⑤ 식사는 규칙적으로 즐겁게 합시다.